이낙연측 "당헌·당규 위반"…당 지도부 "절차 위배 없어"

민주당 대선 경선 무효표 논란

홍영표 "결선투표 반드시 진행을"
이재명측 "승복 해주시는게 필요"
정세균·김두관 "분란만 낳는 일"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정됐지만 1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경선 주자 사퇴 전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날 무효표 처리를 놓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반발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승복'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며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선 불복을 운운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축구, 야구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영상판독장치로 다시 판독한다.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의를 신청했다고 경기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 확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선거라는 게 사실 결과를 수용하는 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당 대표가 되었기에 그런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승복을 해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경선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고, 과정을 봐도 절차에 위배됐다든지 하는 것이 없었다"며 "2012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무효표 처리가 됐더라. 작년 8월 특별당규로 다시 그 규정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당으로서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선을 마치고 나서 룰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 참석,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자대결, 이재명 35.8%·윤석열 33.2%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35.8%, 윤 전 총장은 33.2%를 각각 기록했다. 격차는 2.6%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35.2%로, 홍 의원(33.0%)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응답이 51.5%를 기록하며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응답은 39.7%였고, '잘 모르겠다'는 8.8%였다.

대선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97.9%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 첫 행보 서울 아닌 대전현충원 참배

국가 안보 행보에 중원공략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을 참배했고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했다. 캠프에서는 변재일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찬대 대변인, 박홍근 비서실장, 김남국 수행실장 등이 수행했다.

이 후보와 송 대표는 현충탑 헌화와 분향, 묵념을 마친 뒤 내부로 이동해 위패봉안실과 봉안당에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후 현충문으로 나와 방명록을 작성했다. 그는 방명록에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전현충원 방문 의미와 관련, "국가 제1 의미는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라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 공동체가 계속 유지·존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예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을 당연시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국난이 닥쳤을 때 누구나 스스럼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당연히 국가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을 찾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 때문"이라며 "(대전현충원이) 충청 지역에 있기에 일부러 선택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중요한 길은 공정한 사회"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정해야 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의 불공정·불균형이 없는 균형 잡힌 나라가 이 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을 먼저 찾은 것은 처음이다. 여기에는 국가 안보 행보에 더해 대선의 '캐스팅 보트'인 중원 공략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전직 대통령 참배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0%…0.4%P 하락

리얼미터…정당, 국민의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 40%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10월1주차 주간집계(10월5~8일)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응답이 9월5주차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0%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오른 56.8%(매우 잘못 41.3%·잘못하는 편 15.5%)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3.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9.2%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빠진 31.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격차는 7.8%포인트로 지난주(6.9%포인트) 격차보다 소폭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629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이 가운데 2015명이 응답을 완료했다(응답률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23	6
총계		93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